

##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2016.06.20. | 새사연 노동경제팀 | smj@saesayon.org

“불확실한 미래에 기대기보다 현재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 우리의 청년고용정책에 있어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 성장 국면이 오더라도 그 동안 청년고용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세대들은 앞으로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년고용문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기에 청년고용문제를 겪은 청년 세대들은 경제 성장 국면에서도 좋지 않은 일자리에 일하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긴 세대”가 될 수 있다.

### 들어가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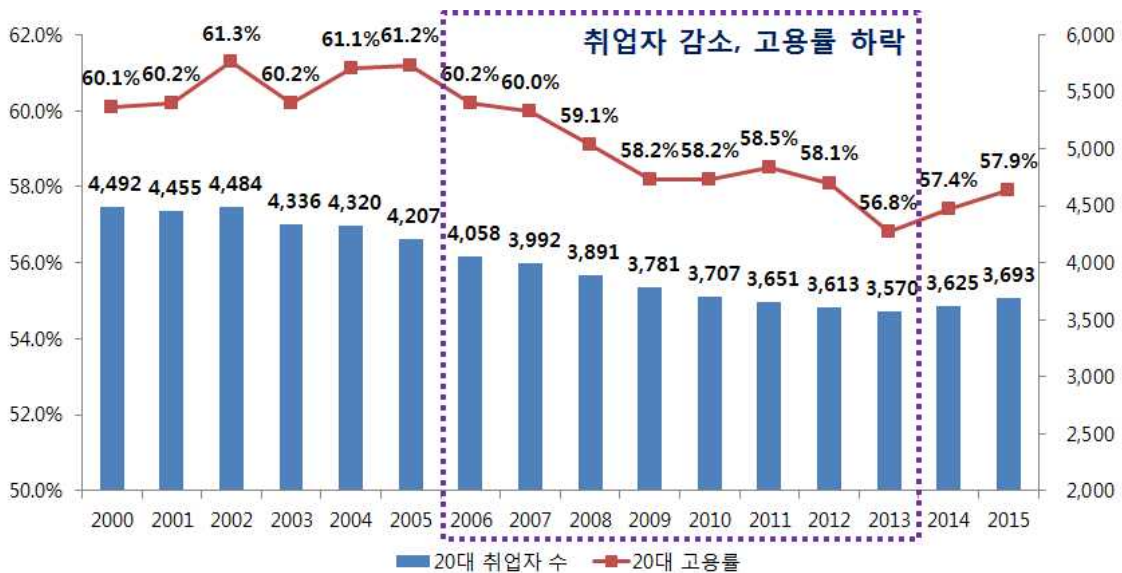
“졸업=취업”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의 부모님 세대 중에는 노동시장 밖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들도 많다.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일자리를 찾고 졸업 전부터 혹은 졸업과 동시에 출근을 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하지만, 점점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도 이해가 간다는 것이다.

“학점도 높고,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 토익점수도 높는데 서류도 통과 못 하더라고요.” 지원했던 딸을 서류심사에서 떨어뜨린 대기업에는 화가 나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를 바란다는 어머니는 그런 실패들이 딸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가 가장 큰 걱정이다. 친구들의 자녀들을 봐도 대학 졸업을 미루거나, 대학 졸업 후 학원에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대학 졸업장이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경쟁하는 청년들이 가끔은 안쓰럽게 여기질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청년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학교 졸업했으면 빨리 일자리를 찾아서 결혼을 해야지. 언제까지 부모님 걱정하게 할 거냐?” 명절날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충고하는 삼촌, “우리 아들은 내가 어디 일자리가 낫더라고 해도 거들떠도 안 봐. 지 고집만 있어가지고, 대학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학교에 가더라고. 갠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라며 한숨 쉬는 아버지는 이런 청년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들에게 있어 문제는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청년들이 최근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율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가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의 의미한다. 노동시장 밖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의 비중이 더욱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이 지속되면서 청년의 고용문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림 1.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단위 : 천 명, %)



※ 취업자 수는 우측 축, 고용률은 좌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왜 청년들은 노동시장 밖에 머물러 있나?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노동시장 밖에 머물러 있을까? 지난 정부는 교육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오히려 노동시장 밖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상의 이유를 “높은 눈높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한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는 이전까지 청년들이 내어 왔던 목소리와 상관없이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 했던 많은 이들을 설득시켰다. “그래,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고, 좋을 일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 라고 이해되기도 하는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와 관련된 주장은 사실 경제학에서 노동공급 규모를 설명하는 이론과 관련된다.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제학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받고 싶은 임금



(Reservation wage), 소위 눈높이 임금 또는 유보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노동시장에 나가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임금보다 낮을 경우 취업을 하고, 높을 경우 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이씨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시간당 임금은 1만 원이지만, 실제 주어지는 임금은 7천 원이라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김씨에게 이를 적용하면 “월 3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임금은 월 250만 원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김씨에게 월 300만 원 받으려 하지 말고 월 250만 원을 받는 일자리에 눈높이를 낮춰 취직하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 눈높이 임금, 유보임금을 사회적 임금보다 낮추도록 유도하면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정부는 눈높이를 낮추라는 충고와 함께 청년인턴제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청년고용문제를 완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전 정부의 청년고용문제 관련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은 기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대통령과 같은 당의 대선후보조차 말이다. 정부와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결국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고용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편하고, 쉬운 일만 하려는 청년들이” 청년고용문제 심화의 주요 이유인 것이다.

높은 눈높이가 문제라는 주장에 청년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청년들과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많은 이들은 청년층 일자리의 상당수가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좋지 않은 일자리로 채워지게 된 현실을 청년고용문제의 원인으로 꼽는다.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그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이 벌어지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포기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정부가 주장하는 “높은 눈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낮은 임금, 일자리 수준”이 문제라는 것이다. 경제학의 노동공급 관련 이론을 다시 가져와 보면, 교육 수준의 향상과 이전 세대와 비교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스펙들,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은 청년들이 받고 싶은 임금, 즉 눈높이 임금, 유보임금을 어느 정도 상승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 등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임금 수준이 하락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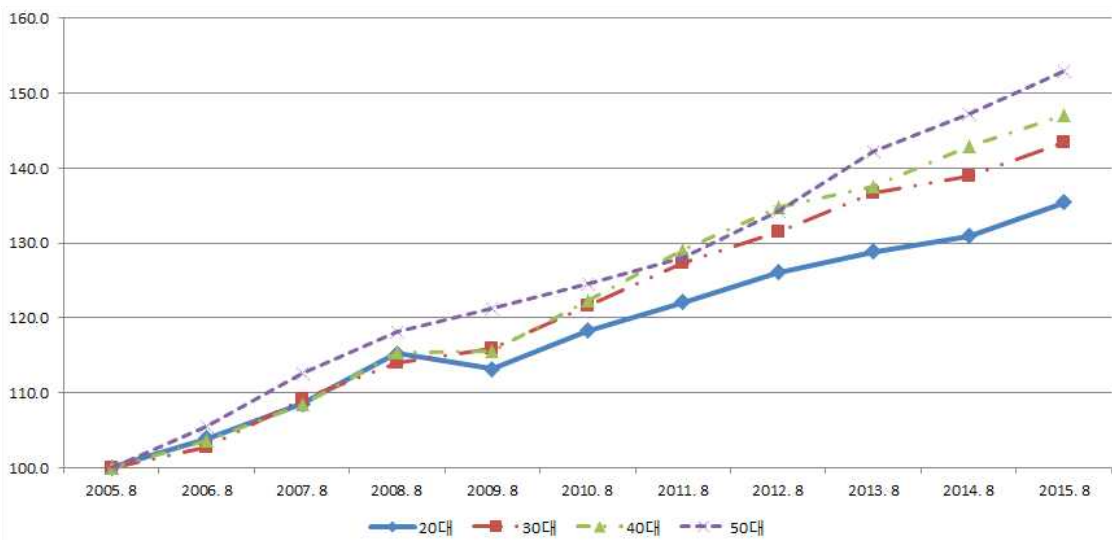
실제 청년층 일자리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편인 것이 사실이다. 2015년 8월 현재 20대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5.9%<sup>1)</sup>로 50대 48.7%보다는 낮지만, 30대 30.5%, 40대 37.6%보다 높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45.0%이다. 또한 임금 수준으로 보면 30대, 40대, 50대에 비해 월평균 임금이 낮은 것은 당연하지만, 임금 상승률에 있어서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2005년 8월의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해 그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2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상승 수준이 상대적으로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각 연도 8월) (단위 : 만 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대	127.3	132.2	138.1	146.8	144.1	150.6	155.4	160.4	164.0	166.6	172.3
30대	178.1	183.1	194.6	203.0	206.5	216.6	226.7	234.2	243.5	247.5	255.5
40대	186.9	193.7	202.9	215.7	216.2	228.6	241.4	252.1	257.2	267.0	274.9
50대	165.1	174.2	185.8	195.1	200.1	205.8	211.4	221.8	234.8	243.1	252.6
전연령 평균	165.0	171.6	181.4	191.9	193.9	203.6	212.7	221.6	229.7	235.7	243.5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부가조사

그림 2.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의 상대적 변화 추이 (각 연도 8월)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부가조사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1) 비정규직의 규모는 “김유선 (201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8)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ISSUE PAPER 11호”의 기준을 통해 산정함. 이는 정부 기준 비정규직에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과 일용직인 임금근로자를 합쳐서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한 것으로 정부 발표와 다름



정책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을 줄이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고용의 불안정성은 제시된 사회적 임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개인이 받아들이는 사회적 임금 수준, 일자리의 가치를 더욱 낮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지금보다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산업 정책과 함께,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좋은 조건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은 누구인가?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다를 지라도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모두 동의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지금 20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비중의 축소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증대로 이어져 저출산 고령화를 심화시켜 문제를 더욱 악화되게 만든다. 청년고용문제는 이미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청년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이 누구인지 조금 더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은 누구인가?”, “심화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마련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살펴본다.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로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가 있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정규교육과정을 마쳤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의 증가는 생산 활동, 숙련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청년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 국가들은 정규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으면서, 취업해 있거나 직업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청년들을 니트라고 정의하고 청년 니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썼다.

여기서는 이러한 니트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밖 청년들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분석 대상을 정해야 한다. 실제 청년층 노동시장 문제란 측면에서 국가마다 니트는 분석 대상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영국에서는 의무교육 이후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16세~18세 청년층을 중심으로 니트를 정의



하고 고찰한 반면, 일본의 경우 15세~34세 사이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들 중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니트로 구분하고 청년 니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고용문제의 중심이란 점에서 20세~29세 연령대를 기준으로 청년 니트를 살펴본다<sup>2)</sup>.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20대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638만 4천 명이다. 니트의 개념에 따르면 이 중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371만 9천 명의 취업자는 니트에서 제외된다. 20대 청년층 중 266만 5천 명이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이다. 이들 중 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도 니트에서 제외된다. 즉, 20대 청년들 중 현재 정규교육기관에 통학을 하고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이들,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에 통학하고 있는 이들은 노동시장 밖에 있지만 니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문제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숙련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청년 니트와 구분된다. 이와 함께 건강 상의 이유로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나,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를 선택하고 있는 이들도 여기서는 니트에서 제외했다. 개인의 신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또는 자발적으로 니트 상태를 선택한 이와 같은 경우 역시 청년층 노동시장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개념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20대 청년층 중 131만 9천 명이 청년 니트로 계산된다. 20대 생산가능인구 중 20.7%가 청년 니트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를 니트라는 하나의 용어로 지칭하기에는 그 특성의 차이가 크다. 이들 중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집에서 가사나 육아 등의 일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특성에 따라 (1) 실업자, (2) 구직준비 니트, (3) 가구 내 노동 니트, (4) 비구직 니트로 다시 구분해 보았다.

우선 실업자는 사실 상 니트 개념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이다. 국내 청년 니트와 관련된 다른 연구들에서도 니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현재 노동시장 밖에 머물러 있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 계속 노력하고 있는 이들로, 현재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다고 답을 한다. 2015년 8월 현재 31만 1천 명, 전체 20대 청년층 중 4.9%가 실업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구직준비 니트는 현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 1주간 활동에 대한 질문”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2) 20대로 분석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청년 니트의 규모는 과소하게 측정될 수 있지만, 개인의 생애사에 있어 교육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청년 니트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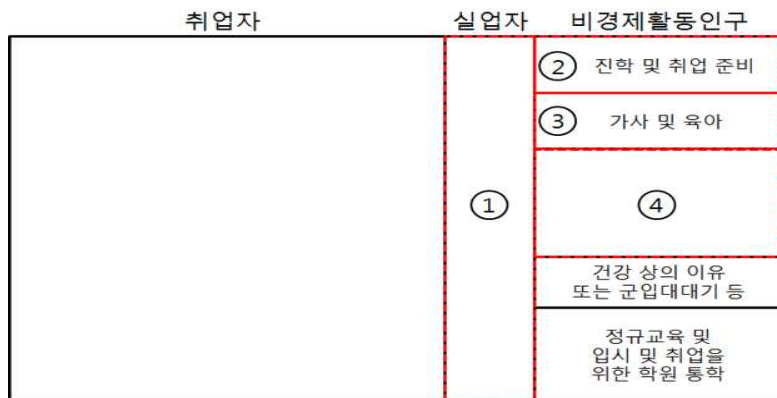
기관에 통학하고 있다” 고 답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준비” 는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다. 2015년 8월 현재 37만 1천 명이 구직준비 니트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대 생산가능인구의 5.8%에 해당한다.

가구 내 노동 니트는 니트 상태이면서 가사 노동과 육아 활동이 주된 활동이라 답한 이들이 포함된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사 및 육아와 같은 가구 내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은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통계청에서는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속한 가구가 경영하는 농장, 사업체에서 18시간 일한 이들을 취업자로 분류한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당 20시간을 일하면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하지만 18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데 이들 청년들 또한 가구 내 노동 니트에 포함된다. 2015년 8월 현재 20대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4.7%에 해당되는 30만 1천 명이 가구 내 노동 니트이다.

마지막으로 비구직 니트는 청년 니트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진학이나 취업 준비 및 가사나 육아 등과 같은 가구 내 노동 행위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지난 1주간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주로 쉬었다고 답한 이들로, 2015년 8월 현재 20대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5.2% 수준인 33만 2천 명이 비구직 니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청년 니트의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3>이다. 그림 가장 바깥의 사각형은 20대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전체를 가리키며, 이는 다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크게 구분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취업자,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 등을 제외한 청년 니트는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①의 실업자, 취업이나 진학 준비를 하는 ②의 구직준비 니트, 가사나 육아 등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③의 가구 내 노동 니트, 그리고 구직활동도, 구직준비도, 가구 내 노동도 하지 않는 ④의 비구직 니트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3. 청년 니트의 구분





청년고용문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책의 첫 번째 우선순위 대상은 비구직 니트이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며 진학이나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가구 내 다른 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 비구직 니트 중 고학력자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갖춘 이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숙련 축적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일 경험을 제공해 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스스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분야를 체험해보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들을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림 4. 청년 비구직 니트의 학력별 구성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부가조사

다음으로 가구 내 노동 니트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구 내 노동은 개인이 속한 가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노동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가사 노동을 해야 하고, 가구 내 아이가 있을 경우 육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사실 상 생산 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구 내 노동을 선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쉬고 있으면 뭐해.” 다른 가구 구성원들의 핀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비구직 니트가 아닌, 가구 내 노동 니트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구 내 노동 니트에서도 4년제 대졸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2005년 8월 중졸이하 4.5%, 고졸 55.2%, 전문대졸 22.9%, 4년 대졸 16.0%, 대학원졸 1.4%이던 가구 내 노동 니트의 학력 구성은 2015년 8월 중졸이하 10.1%, 고졸 36.3%, 전문대졸 22.3%, 4년제 대졸 28.1%, 대학원졸 3.1%로 변화한다. 가구 내 노동을 하는 이들 중 고학력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고학력자들의 높은 인적자본이 과연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자발적으로 가구 내 노동 니트가 된 이들의 경우 역시 비구직 니트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으로 전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 20대 청년층 가구 내 노동 니트의 경우 97.6%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력단절이 주로 발생하는 30대 여성뿐만 아니라 20대 청년층에서도 여성의 가구 내 노동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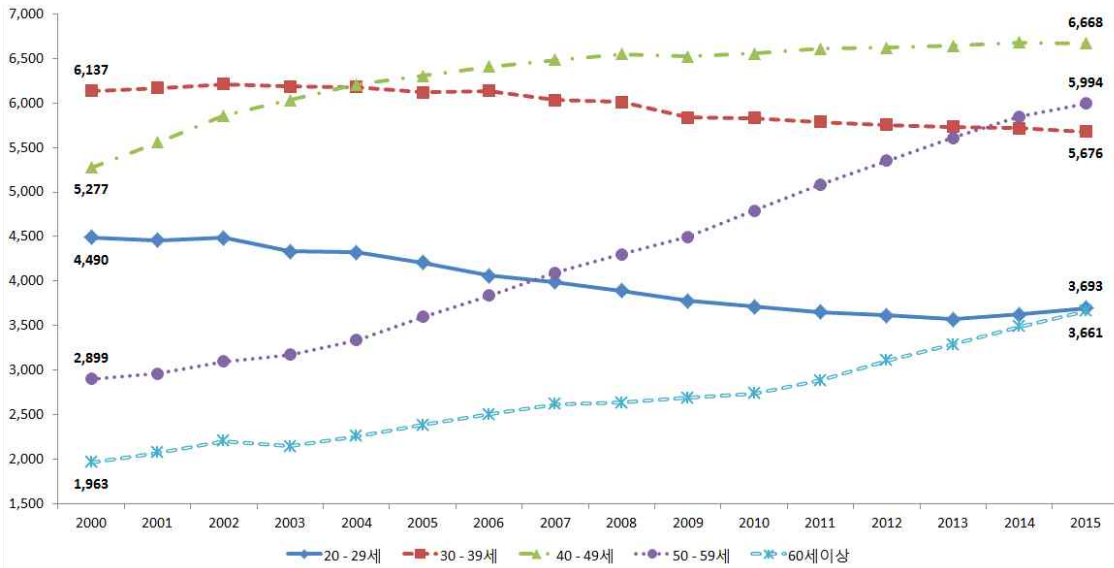
청년 실업자 및 구직준비 니트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거나 구하려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보다 쉽게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이 중요하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중소기업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책들과 함께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 정책이 수반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Carpe diem, quam minimum credula postero  
(오늘을 잡아라, 가급적 내일에 최소한의 기대를 걸면서)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에서도 청년들은 줄어들고 중고령층 노동자들은 늘어나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 449만 명이던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는 2015년 369만 3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60세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는 동일 기간 196만 3천 명에서 366만 1천 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들어서는 결국 60세 이상 취업자의 수가 20대 취업자의 수를 추월하는데, 2016년 5월 현재 20대 취업자 수는 380만 6천 명이고,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400만 명이다.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가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어쩌면 사회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면 소득이 적은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2년 동안은 고용률이 상승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 취업자의 절대 규모는 줄어드는 경향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고용률은 지난 2년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5. 연령대별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를 지적하며 아주 낮은 수준을 일자리에 일단 취업하도록 하는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은 해당 고용 문제가 단기적인 충격으로 인한 결과일 경우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청년고용문제가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라면 경기 회복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때까지 청년들이 숙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적인 일자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경우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은 투입된 재정에 비해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며 청년고용문제가 반복되도록 할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결국은 경제 성장 국면에 들어서야 청년고용문제가 해결되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장기적 정책보다 그래도 적은 돈이 투입되는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을 통해 시간을 버는 게 답이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시장경제가 가지는 회복력을 믿는 이들은 오히려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

이라고 이야기하며 “끈기를 갖고 기다리면” 지금 일본과 같이 신입사원을 모시기 위해 대기업들이 경쟁하는 시기가 곧 올 것이라 주장하며 “청년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꼭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로빈 윌리엄스)이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시험 기간 일탈의 시간을 가지며 “오늘을 즐기자”란 의미로도 사용되는 이 말은 호타리우스의 라틴어 시 한 구절인 “Carpe diem, quam minimum credula postero”에서 유래된 말로, 이 구절은 “오늘을 잡아라, 가급적 내일에 최소한의 기대를 걸면서”로 번역된다.

“불확실한 미래에 기대기보다 현재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 우리의 청년고용정책에 있어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언제 올지 모를 경제 성장 국면을 기다리면서 청년들에게 반복되는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 성장 국면이 오더라도 그 동안 청년고용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세대들은 앞으로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년고용문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청년고용문제를 겪은 청년 세대들은 경제 성장 국면에서도 좋지 않은 일자리에 일하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깁 세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리 사회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있어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지금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다가올 경제 성장 국면을 기대한다면 현재 청년고용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경제 성장 국면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할 뿐,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국면에서 현재 청년고용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그 시점에 졸업하는 청년들과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6월 20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경제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불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 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강세진
노동	6/14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김수현